



미 증시, 대형 테크주 실적 기대감 등으로 사상최고치 경신

미국 증시 리뷰

26 일(월) 미국 3 대 증시는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에 따른 중화권 증시 급락, 6 월 주택지표 부진에도, 대형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이 지속된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 다만, 금주 7 월 FOMC 및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지수 상단을 제한(다우 +0.24%, S&P500 +0.24%, 나스닥 +0.03%). 업종별로는 에너지(+2.50%), 소재(+0.88%), 경기소비재(+0.77%) 등이 강세, 헬스케어(-0.6%), 산업재(-0.02%), 기술(-0.02%)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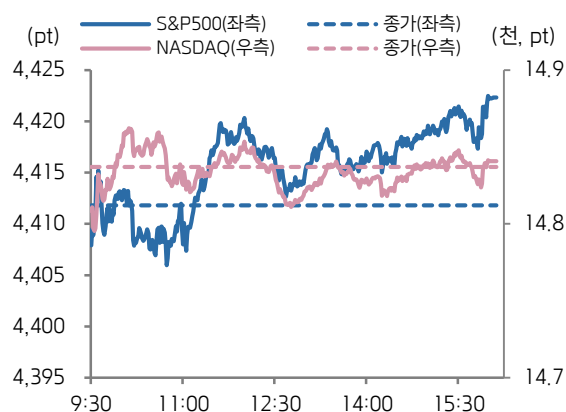
6 월 신규주택판매는 -6.6%(MoM)로 전월(-7.8%)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됐으나, 예상치(+3.5%)를 큰 폭 하회하는 등 최근 과열 분위기가 있었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모습. 7 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27.3 로 전월(31.1) 및 예상치(31.6)를 모두 하회. 그럼에도, 세부항목인 가격지불(80.8→73.5), 가격수용(42.8→40.9)이 하락했다는 점은 해당 지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미국 증시 평가

한때 1.1%대로 급락했던 미국 10 년물 금리는 1.28%대로 빠르게 반등한 양상. 이는 델타 변이발 경기 둔화 우려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어긋났던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간의 상관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음을 시사.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테슬라(+2.2%)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테크주들의 2 분기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물론 호실적 전망은 상당부분 선반영 되었으며 이익 피크아웃 논란도 해소되지 못한 것은 사실. 그럼에도 경기 정상화 진행이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 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개선의 추세 자체는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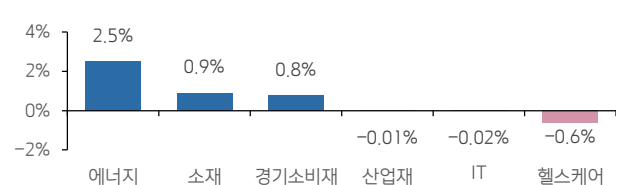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7 월 FOMC 및 7 월말 미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등 정책 및 정치 이벤트를 소화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 일각에서는 7 월 FOMC 에서 연준이 델타 변이 확산을 근거로 테이퍼링 속도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S&P500&NASDAQ 일종 차트(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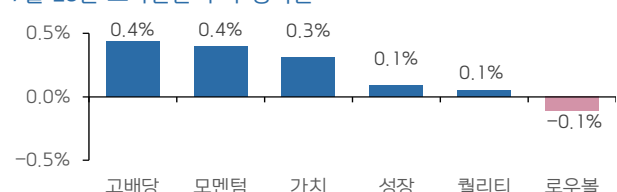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2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3.2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현대차, 삼성 SDI 등 주요 대형주들의 2분기 실적 발표 2. 미국 테슬라 어닝서프라이즈에서 기인한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 3. 미국 로블록스의 5%대 주가 급락에 따른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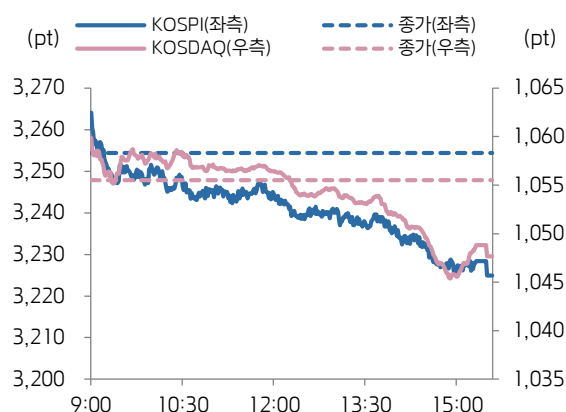
26 일(월)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강세에도, 7 월 FOMC, 미국 FANNG, 국내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가 상존하며 하락 출발. 장 초반 이후에는 중국정부의 사교육 및 음악 산업 등 규제 강화 소식에 따른 중화권 증시 급락이 대부분 아시아 증시에도 위험자산회피 심리를 확산시킴에 따라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하락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0.7%). 업종별로는 의료정밀(-2.5%)을 제외한 기계(-2.1%), 건설(-1.5%), 보험(-1.4%), 증권(-1.4%) 등 전업종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50 억원, 3,380 억원 순매도, 개인이 7,24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실적시즌 기대감에서 기인한 미국 증시 강세가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 중화권 증시 급락 충격의 대부분은 미중 갈등 보다는 교육 및 음악 산업 규제 등 중국 내 고유의 산업 리스크에서 기인한 만큼, 국내 증시로 충격이 지속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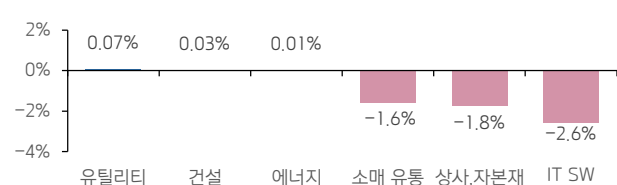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7 월 FOMC 등 매크로 이벤트를 앞둔 관망심리 속에 개별 업종 및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 흐름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미국 장 마감 후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딛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는 소식은 국내 증시에서 전기차 밸류체인주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전망. 또한 현대차,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대표 섹터 내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의 실제 실적 및 장 중 주가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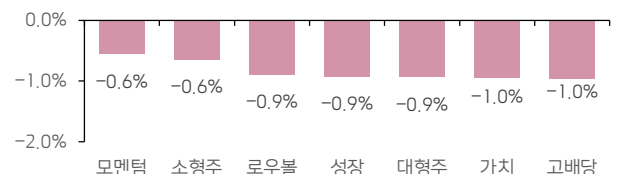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2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